

제 1 교시

2022학년도 임권의 하프 모의고사 6회차 문제지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모의고사는 틀리려고 보는 것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희파국어연구소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릇 책을 읽는 자는 반드시 단정히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며, 공경히 책을 대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정순한 생각으로 익숙히 읽고 깊게 생각하여 깊은 의취를 이해하고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구해야 하니, 만일 입으로만 읽고 마음으로 본받지 않아서 몸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책은 책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먼저 『소학』을 읽어서, 아버이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히 하는 도리에 대해 일일이 자세히 익혀서 그것을 힘써 실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 『대학』 및 『후문』을 읽어서,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하나하나 참으로 알아서 성실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중략)

이상의 오서와 오경을 돌러가며 익숙히 읽음에, 이해하기를 마치지 않아서 뜻과 이치로 하여금 날마다 밝아지게 하고, 송나라의 선현들이 지은 책인 『근사록』, 『가례』, 『심경』, 『이정전서』, 『주자대전』, 어류(語類) 및 기타 성리설 같은 것을, 마땅히 틈틈이 정독해서 뜻과 이치로 하여금 항상 내 마음에 젖어들어 어느 때고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고, 남은 여가에 또한 역사책을 읽어 고금을 통하고 사물의 변화에 통달해서 식견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단 잡류의 바르지 않은 책이라면 잠시라도 펼쳐 보아서는 안 된다.

대체로 책을 읽음에, 반드시 한 책을 숙독하고 뜻과 취지를 모두 깨달아서 관통해서 의심을 없앤 다음에, 다시 다른 책을 읽어야 하고, 많이 읽기를 탐하고 얻기를 힘써서 조금하계 섭렵하지 말아야 한다.

- 이이, 「격몽요결」 -

1. 윗글의 필자인 'A'와 <보기>의 필자인 'B'의 독서 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나는 대학 졸업 후 회사 생활에 유용한 실용 도서를 집중해서 읽었지만 이런 독서는 회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양한 인간 군상의 삶이 펼쳐진 대하소설을 찾아 읽었다. 대하소설을 읽으니 사회와 다양한 인간형을 이해하게 되어, 회사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① A는 B에 비해 재미와 흥미를 위한 독서를 선호하는군.
- ② A는 B에 비해 최신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독서를 강조하는군.
- ③ A는 B와 달리 관심 분야의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
- ④ B는 A에 비해 생활의 문제와 관련된 독서를 중시하고 있군.
- ⑤ B는 A에 비해 다양한 분야의 식견을 넓히는 독서를 주장하는군.

2.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어야 한다.
- ②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며 읽어야 한다.
- ③ 책을 정독하여 깨달은 것을 내면화해야 한다.
- ④ 책에 담긴 뜻과 취지를 완전히 깨우쳐야 한다.
- ⑤ 바른 자세를 취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3~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각 세포의 형질이 어떤 상황에서 특징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정보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에 들어 있다. 따라서 유전 정보의 적절한 발현이 세포의 형질을 결정하며, 생물체의 형질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형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유전 정보가 인간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지능, 그리고 성격까지도 결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끌어 내었다. 유전자 연구는,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에 도움은커녕 피해만 주므로 도태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극단적인 우생학* 때문에 한동안 주춤했으나 최근에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나)

인간과 유전자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는, 약 1세기 전 골턴(Galton)이 연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러던 중 근래에 ㉠쌍생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이란성 쌍생아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생아들을 비교한 것으로, 유전적 요인이 인간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심증을 굳히게 하였다.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를 통해서, 각종 범죄, 조울증, 정신 분열증, 알코올 중독증 등 주변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성향들에도 유전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에 의미를 부여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의 질병을 대상으로 그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구체적으로 찾는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다.

(다)

인간의 유전병은 대략 3,000여 가지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밝혀낸 것은 단순한 유전병 100여 가지에 불과했다. 그런데 심각한 유전성 신경질환인 ‘헌팅턴병’의 원인 유전자를 규명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염색체로부터 DNA를 뽑아 제한효소로 잘라지는 패턴을 정상인과 비교한 결과, 그 패턴이 특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제4번 염색체에서 헌팅턴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찾아내게 되었는데, 이는 유전학 연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

그러나 아직 많은 유전병은 그 원인 유전자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다. 또 원인 유전자를 찾아냈다고 해도, 그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정보가 인간이 가진 46개의 염색체 중 어디에 있으며, 어떤 염기 서열로 되어있는지를 분명히 밝혀내는 일은 쉽지가 않다. 더구나 지능이나 피부색처럼 여러 유전자가 함께 작용하여 형질을 나타내는 경우, 각 유전자의 상호 관계와 역할을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마)

특별한 증세와 관련된 염색체 또는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보고들이 있지만, 그 실험 결과들은 분명한 사실로 입증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유전자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간의 특성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각의 유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전정보를 갖고 있는지 밝히는 것과,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연구자들의 과제이다.

* 우생학: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인구의 증가를 피하고 열악한 유전자를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3.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세포의 형질은 유전정보와 관련이 있다.
- ② 인간의 성격은 유전정보의 영향을 받는다.
- ③ 일부 유전병의 원인 유전자를 규명하였다.
- ④ 유전자 연구에 힘입어 유전병을 치료하고 있다.
- ⑤ 유전자의 상호 관계 규명은 유전학의 과제이다.

4. ㉠의 결과 중, 윗글의 논지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일란성 쌍생아인 A와 B는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격이 판이하다.
- ② 이란성 쌍생아인 C와 D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격이 흡사하다.
- ③ 이란성 쌍생아인 E와 F는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격이 판이하다.
- ④ 일란성 쌍생아인 G와 H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성격이 판이하다.
- ⑤ 이란성 쌍생아인 I와 J는 동일한 환경에서 자라서 성격이 흡사하다.

5.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보기>를 활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기관들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 그 폐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일보 -

- ① 글 (가) ② 글 (나) ③ 글 (다)
- ④ 글 (라) ⑤ 글 (마)

6. 윗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우생학자들은, 전쟁으로 건강한 청년들은 전사하고, 징집되지 않은 약자가 살아남아 2세를 만든다고 생각했다. 결국, 알코올중독자와 신체허약자만 남겠다고 한탄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허약자와 병자의 증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치 정권은 불치병환자나 정신병자 등을 ‘살 가치 없는 삶’으로 간주하여 30여만 명의 허약자들을 거세하였다. 또 그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을 지녔다고 하여 유태인이나 반체제인사 수백만 명을 학살하였다.

- ① 나치 정권 몰락 후 우생학 연구는 상당히 활발해졌겠군.
- ② 나치 정권의 우생학자들은 유전자의 역할을 맹신했겠군.
- ③ 나치 정권은 유전자 연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겠군.
- ④ 나치 정권은 민족마다 독특한 유전정보가 있다고 보았군.
- ⑤ 나치 정권의 우생학을 이용한 인권 유린이 상당히 심했군.

[7~1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人間)을 찌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호고 저것도 드르려코
 브름도 혀려 호고 들도 마즈려코
 봄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노
 아춤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나올소나
 ㉠ 오늘리 부족(不足)거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호라
 이 피히 안즈 보고 더 피히 거러 보니
 번로(煩勞)호 므음의 브릴 일이 아조 업다
 설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호리야
 다만 호 청려장(靑藜杖)이 다 므디여 가노미라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나
 불니며 특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저츠락
 을프락 프람호락 노혜로 노거니
 천지(天地)도 넘고 넘고 일월(日月)도 호가(閑暇)호다
 회황(羲皇)을 모을너니 니격이야 기로괴야
 신선(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기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岳陽樓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나
 이 몸이 이령굽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송순, 「면양정가」 -

(나)

㉢ 연하(煙霞)의 김피 든 병(病) 약(藥)이 효험(效驗) 업서
 강호(江湖)에 바리연디* 십년(十年) 밧기 되어세라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괴 성은(聖恩)인가 흥·노라
<제3수>

㉣ ㄷ·ㄹ ㅂ·ㄹ이고 ㅅ·람 자니 물결이 비단 일다
 단정(短艇)*을 빗기 노하 오락가락 흥·난 흥(興)을
 백구(白鷗)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世上) 알가 흥·노라
<제5수>

식록(食祿)을 굿친 후(後)로 어조(漁釣)을 생애(生涯)흥·니
 험 업슨 아흥·ㅣ들은 괴롭다 흥·건마ㄴ·ㄴ
 두어라 강호한적(江湖閑適)이 내 분(分)인가 흥·노라
<제9수>

- 나위소, 「강호구가」 -

- * 바리연디: 버려진 지.
- * 단정: 자그마한 배.

(다)

나는 때때로 산수를 찾아 노니는 사람이나 떠돌아다니는 승려들을 만나 자연의 신비함에 대해 말하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 가끔 그들과 토론을 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댄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런 고집스런 취미를 비웃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아 다리에 힘이 없어지니 어쩔 도리가 없다.

나는 부득이 편하게 노닐 수 있는 방법으로 고금에 이름난 화가들이 그린 산수화를 모아 벽에 걸어놓고 감상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역시 화가들의 훌륭한 기법과 특이한 풍경 외에는 별로 느껴지는 것이 없었다. 벽에 걸린 그림으로는 진실에 가깝게 생동하는 맛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늘 마음이 허전하였다.

나는 종남(終南)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 별장의 남쪽 담 밖의 돌 틈에 우물이 솟아올랐는데 물맛이 좋고 차가웠다. 나는 대청 앞에 못을 파서 그 물을 가둔 뒤에 연꽃을 심고 연못 가운데에 괴이하게 생긴 돌을 쌓아서 산모양을 만들었다. 다시 그 돌 틈 사이사이에 소나무, 회양목 등 작은 놨만 골라 심었다.

[A] 그런데 담 밖에서 우물이 솟아나는 곳은 땅보다 석자가 더 높은 곳이어서 그 물을 대통으로 끌어다가 땅에 묻어 내가 만든 돌산 가운데로 솟아 나오게 하였다. 그러자 물이 폭포를 이루며 두 개의 계단을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끌어들이던 물인 줄도 모르고 물이 돌산 위에서 평평 솟아나는 것을 보며 놀랍고 신기함에 감탄하였다.

산을 좋아했던 옛사람들 중에도 돌로 만든 가짜 산을 만든 이가 많았고 또 거기에 폭포를 끌어들이는 이도 더러 있었는데, 집의 뒤쪽이나 옆에 있는 높은 산을 이용하여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나처럼 연못의 한 가운데 산을 만들고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곳에 물을 끌어들이 산 위에 폭포를 만든 사람은 없었다. ㉠ 작지만 큰 산을 본땀고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손쉽게 만들었다.

이 연못은 겨우 너비가 두어 장(丈)이고 깊이도 두어 자밖에 안 되며, 산 높이는 다섯 자이고 둘레는 일곱 자이며, 폭포의 높이는 두 자인데 나무들의 크기는 서너 치쯤 되어 마치 높은 산을 축소하여 만든 것 같았다. 산골짜기는 그윽하고 폭포가 두어 장 되는 연못을 깊은 바다로 알고 떨어진다. ㉡ 이 축소된 자연의 경치는 아무리 산수화에 뛰어난 저 당나라의 정건이나 왕유 같은 이도 다 그리지 못할 것 같았다.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가짜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겠다. 필경 천지와 사람이 모두 임시로 합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진가(眞假)를 논하겠는가? 다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면 그만인 것이다. 게다가 이 세상 만물은 입맛에는 맞지만 눈으로 보는 데는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보기는 좋은데 듣기는 싫은 것이 있다.

[B] 그런데 이곳의 물은 차고 맛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과 이웃들이 아침저녁으로 마시니 입맛에 맞다고 할 것이고, 괴이한 돌과 소나무, 잣나무 사이로 흘러서 두어 자의 절벽 밑으로 떨어지며 맑은 기운이 푸른 산봉우리에 비쳐 밤낮 없이 바라보아도 싫증 나지 않으니 노는 데에도 즐거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요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베개를 베고 누워 있으면 쉼이 하고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마치 요란한 관현악기 소리 같아서 귀를 즐겁게 한다.

나는 가난하고 벼슬도 한미하여 좋은 진주나 보배, 아름다운 것들로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고, 기름진 음식으로 입맛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으며, 관현악기 같은 악기의 소리로서 귀를 즐겁게 하는 것도 없다. 그러나 다만 이 샘물로 이 세 가지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니 진실로 담박하면서도 멋이 있다.

세상의 호걸들은 모두 나의 이 취미를 비웃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하여 이것으로써 저들이 좋아하는 것과 바꾸지 않겠다.

- 채수, 「석가산폭포기」 -

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8. <보기 1>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1 >—

선생님 : (가)와 (나)는 벼슬에서 물러난 작가들이 귀향한 후의 삶을 표현한 작품으로, 우리 문학사에 나타나는 시가의 특정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어요. 두 작품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 보 기 2 >—

- ㄱ.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 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 ㄷ.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타인과 나누려는 마음가짐이 드러나 있습니다.
- ㄹ. 궁핍한 생활상을 보여 주면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습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ㄱ, ㄷ, ㄹ

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변에 즐길 것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자신의 풍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다.
- ③ ㉡: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옛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석가산을 만든 것에 대한 보람이 나타나고 있다.
- ⑤ ㉡: 자신이 만든 석가산과 폭포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요산요수(樂山樂水)를 통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며 심성을 수양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아름다운 경치를 직접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기 집 정원에 산을 본뜬 조형물인 석가산을 만들어 완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만들었던 사람이 만들었던 간에 본질은 같기 때문에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사대부들은 석가산을 완상하면 산의 진경(眞景)을 찾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① 글쓴이는 노쇠하여 산과 물을 직접 찾기 어렵게 되자 별장의 정원에 석가산을 만들어 완상하고 있군.
- ② 글쓴이는 요산요수를 위해 연못의 한가운데 석가산을 만들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글쓴이는 산수화를 모아 감상하는 것만으로는 산의 진경을 찾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④ 글쓴이가 진가를 논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군.
- ⑤ 글쓴이가 석가산의 샘플에서 비롯된 세 가지 즐거움을 언급한 것은 석가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고층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군.

1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A]에서 발생한 내적 갈등을 [B]에서 해소하고 있다.
- ② '나'는 [A]에서 한 행위로 인해 [B]에서와 같은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 ③ [A]의 '계단'은 관념적 소재에, [B]의 '절벽'은 실재적 소재에 해당한다.
- ④ [A]의 '사람들'은 '물'을 긍정적으로, [B]의 '이웃들'은 '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물'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B]에서는 '물'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12~1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부는 마음이 인후하여 청산유수와 곤륜산의 옥결(玉玦)과 같았다. 성덕을 본받고 악인을 저어하며, 물욕에 탐이 없고 주색에 무심하니, 마음이 이리하니 부귀를 바랄 것인가. 홍부 아내가 하는 말이,

“애고 여복소, 부질없는 청렴 밥소. 안자(顔子) 단瓢(簞瓢)는 주린 염치로 삼십 조사(早死)하였고, 백이숙제(伯夷叔齊)는 주린 염치로 청루* 소년이 웃었으니, ㉠ 부질없는 청렴 말고 저 자식들 굶겨 죽이겠으니, 아주버님네 집에 가서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얻어 읍소.”

홍부가 하는 말이,

“낮을 쇠우에 슬혼고. 형님이 음식 끝을 보면 사촌을 몰라보고 똥 싸도록 때리는데, 그 때를 뉘 아들놈이 맞는단 말이요?”
“애고 동냥은 못 준들 쪽박조차 깨칠손가. 맞으나 아니 맞으나 쏘아나 본다고 건너가 봄소.”

홍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때, ㉡ 치장을 볼 것 같으면 편자 없는 현 망건에 박쫓가리 관자 달고, 물렛줄로 당끈 달아 대가리 터지게 동이고, 깃만 남은 중치막 동강 이은 현 술띠를 흥복통에 눌러 띠고, 떨어진 현 고의(袴衣)에 청을치로 대님 매고, 현 질신 감발하고 세 살 부채 손에 쥐고, 서흠들이 오망자루 꿈무니에 비숙 차고, 바람 맞은 병인같이 잘 쓰는 쇠소(灑掃)같이 어숙비숙 건너달아 형의 집에 들어가서, 전후좌우 바라보니, 앞노적, 뒷노적, 멩에노적 담불담불 쌓였으니, 홍부 마음은 즐거우나 놀부 심사는 무거하여 형제끼리 내외하여 구박이 태심하니, 홍부는 할 일 없어 뜰아래서 문안하니, 놀부가 묻는 말이,

“네가 뉘고?” / “내가 홍부요.” / “홍부가 뉘 아들인가?”

“애고 형님 이것이 웬 말이요? 비읍니다. 형님전에 비읍니다. 세 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단간에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값으며 일을 한들 공할손가. 부디 옛일을 생각하여 사람을 살려 주시오.”

애걸하니, 놀부놈의 거동 보소. 성넨 눈을 부릅뜨고 불을 치며 호령하기를,

“너도 염치없다. 내 말을 들어 보아라. 천불생무록지인(天生無祿之人)이요, 지불생무명지초(地不生無名之草)*라. 네 복을 누굴 주고 나를 이리 보채느냐? ㉢ 쌀이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을 헐며, 벼가 많이 있다고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헐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괴목께에 가득 든 것을 문을 열며, 가룟 되나 주자 한들 북고왕 염소독에 가득 넣은 것을 독을 열며, 의복이나 주자 한들 집안이 고루 벗었거든 너를 어찌 주며, 찬밥이나 주자 한들 새끼 낳은 거먹 암캐 부엌에 누웠거든 너 주자고 개를 굶기며, 지게미나 주자 한들 구중방(九重房) 우리 안에 새끼 낳은 돌이 누웠으니 너 주자고 돌을 굶기며, 꺾섬이나 주자 한들 큰 농우가 네 필이니 너 주자고 소를 굶기라. 염치없다, 홍부놈야.”

하고, ㉣ 주먹을 불끈 쥐어 뒤통지를 짝 잡으며, 몽둥이를 지끈 쥐어 손재 스님의 매질하듯 원화상의 법고 치듯 아주 광광 두드리니, 홍부 울며 하는 말이,

“㉔ 아이고 형님 이것이 웬 일이요. 방약무인 도적(盜跖)이도 이보다는 성현이요, 무거불측(無據不測) 관숙(管叔)이도 이보다는 군자로다. 우리 형제 어찌 이다지도 극악한가.”

(중략)

㉕ 놀부 마음에 흐뭇하여 매통에 열 냥씩을 정하고 박을 권다.

“슬근슬근 툽질이야.”

힘써 켜고 보니 한 때 거문고쟁이가 나오며 하는 말이,
“우리 놀부 인심이 좋고 풍류를 좋아한다 하기에 놀고 가옵네.”

‘둥둥둥둥 둥둥둥둥’ 하기에, 놀부가 이것을 보고 껌보를 원망하는 말이,

“툽도 잘 못 당기고, 네 콧소리에 보화가 변화였는가 싶으니 소리를 모두 하지 말라.”

하니, 껌보 샅받아야겠기에 한 말도 못하고 그리하라 하니, 놀부 일변 돈 백 냥을 주어 보내고, 또 한 통을 타고 보니 무수한 노승이 목탁을 두드리며 나와 하는 말이,

“우리는 강남황제 원당시주승(願堂施主僧)이라.”

하니, 놀부놈이 어이없이 돈 5백 냥을 주어 보내니, 껌보 하는 말이,

“지금도 내 탓이냐?”

하고 이죽거리니, 놀부 이 형상을 보고 통분하여 성결에 또 한 통을 따 오니, 놀부 아내가 말리며 하는 말이,

“제발 덕분에 켜지 마오. 그 박을 켜다가는 폐가망신할 것이니, 덕분에 켜지 마오.”

놀부놈이 하는 말이,

“좁스러운 계집년이 무슨 일을 아는 체하여 방정맞게 날뛰는가.” 하며

또 한 통을 타고 보니 천여 명 초라니*가 ㉖ 일시에 내달으며 달려들어 놀부를 덤미잡이하여 가로 떨어치니, 놀부가 거꾸로 떨어지며,

“아이고 아이고 초라니 형님, 이것이 웬일이요. 생사람을 병신 만들지 말고 분부하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 작자 미상, 「홍부전」(경판 25장본) -

* 청루: 기생집

* 천불생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이요, 지불생무명지초(地不生無名之草): ‘하늘은 녹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

* 초라니: 나례(難禮)를 거행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 기괴한 계집형상의 탈을 쓰고 있음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운율감이 느껴지는 어투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 ③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 ④ 평민 계층의 언어와 양반 계층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다.
- ⑤ 전체적으로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13.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놀부는 남존여비적인 사고로 놀부 처를 꾸짖고 있군.
- ② 껌보는 놀부의 책망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군.
- ③ 흥부는 형제 간의 우애를 내세워 놀부에게 도움을 간청하고 있군.
- ④ 놀부는 흥부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박대하고 있군.
- ⑤ 흥부는 놀부의 평소 성품을 들어 흥부 처의 요구에 난감해하고 있군.

14. ㉑~㉕을 통해 추리할 수 있는 시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고루한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 ② ㉒: 기존의 신분 제도가 흔들리면서 몰락한 양반이 생겨났다.
- ③ ㉓: 돈과 재물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는 태도가 널리 퍼져 있었다.
- ④ ㉔: 가족 간의 결속력이 점차 약해져 경로사상도 약화되었다.
- ⑤ ㉕: 계약적 고용 관계를 토대로 하는 임금 노동자가 등장했다.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예술 철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이자 비평가인 단토는 예술의 종말을 선언하였다. 그는 자신이 예술의 종말을 주장할 수 있었던 계기를 1964년 맨해튼의 스테이블 화랑에서 열린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의 전시회에서 찾고 있다. 그는 워홀의 작품 <브릴로 상자>가 일상의 사물, 즉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릴로 상자와 지각적 측면에서 차이가 없음에 주목하여 예술의 본질을 찾는 데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워홀의 <브릴로 상자>를 통해, 그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두 대

상이 있을 때, 하나는 일상의 사물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 작품인 이유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어떤 대상이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에 관함(aboutness)'과 '구현(embodiment)'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여기서 '무엇에 관함'은 내용 또는 의미, 즉 예술가가 의도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가리키며, '구현'은 그것을 적절한 매체나 효과적인 방식을 통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예술 작품은 해석되어야 할 주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후 단토는 예술의 역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위홀의 <브릴로 상자>가 1964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등장했다면 예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술계(artworld)'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가 말하는 '예술계'란 어떤 대상을 예술 작품으로 식별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당대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지식과 이론 그리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체계를 가리킨다. 1964년의 <브릴로 상자>가 예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일상의 사물과 유사하게 보이는 대상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 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단토는 예술의 역사를 일종의 '내러티브(이야기)'의 역사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사가 그러하듯이 예술사도 무수한 예술적 사건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건들을 선택하고 그 연관성을 질서화하는 내러티브를 가진다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상주의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이른바 '바자리의 내러티브'는 대표적인 예이다. 모방론을 중심 이론으로 삼았던 바자리는 생생한 시각적 경험을 가져다주는 정확한 재현이 예술의 목적이자 추동 원리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바자리의 내러티브는 사진과 영화의 등장, 비서구 사회의 문화적 도전 등의 충격으로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대의 예술가들은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에 따라 예술은 모방에서 벗어나 철학적 내러티브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사를 예술이 자신의 본질을 찾아 진보해 온 발전의 역사로 보는 단토는, 위홀의 <브릴로 상자>에서 예술의 종말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브릴로 상자>로 촉발된 단토의 예술 종말론은 더 이상 예술이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예술이 철학적 단계에 이름에 따라 그 이전의 내러티브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예술 종말론은 비극적 선언이 아닌 낙관적 전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토는 예술 종말론을 통해 예술이 추구해야 할 특정한 방향이 없는 시기, 예술이 성취해야 하는 과업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시기, 즉 예술 해방기의 도래를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15. 밑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단토가 파악한 내러티브로서의 예술사
- ② 단토가 예술 종말론을 주장하게 된 계기
- ③ 단토의 예술 종말론이 지닌 긍정적 함의
- ④ 단토가 제안한 예술계의 지위 회복 방법
- ⑤ 단토가 제시한 예술 작품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

16. 밑글의 내용으로 보아 '단토'의 견해에 부합하기 어려운 진술은?

- ① 오늘날의 예술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을 넘어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② 예술 작품의 본질을 정의하려던 과거의 시도가 결국 실패한 것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실제 사물과 달리, 예술 작품은 그것을 예술로 존재하게 하는 지식과 이론 등에 의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 ④ 예술의 종말 이후에도 시각적 재현을 위주로 하는 그림은 그려지겠지만, 그것이 재현의 내러티브를 발전시키지는 않는다.
- ⑤ 특정한 사고는 특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러서야 생각될 수 있으므로 한 시기에 예술 작품일 수 있는 것이 다른 시기에는 예술 작품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

17.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는 인상주의 화가인 폴 세잔의 <세잔 부인의 초상>이다. (B)는 미술 평론가인 로랭이 자신의 책에서 (A)의 양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다이어그램이다. (C)는 로랭의 책이 출간된 이후에 리히텐슈타인이 그린 <세잔 부인의 초상>이다. 단토는 (B)는 (A)의 양감을 잘 보여 주고 있지만 미술 작품은 아니고, (C)는 세잔이 바라보는 세계를 위트 있게 표현한 미술 작품이라고 말했다.

- ① (A)는 대상의 외관을 재현한 것으로, '바자리의 내러티브'에 의해 미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② (B)는 예술에 대한 철학적 의문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A)와 다르다.
- ③ (C)를 미술 작품이라 한 것은 예술이 철학적 단계에 이르러 그 이전의 내러티브가 종결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④ (A)와 (C)가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대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믿음 체계에 대한 지식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 ⑤ (B)와 (C)는 시각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B)는 해석되어야 할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